

선택 4·11 D-9

이곳이 뜨겁다 ▶ 광주 서구 갑

“민주 정신 못차렸다” vs “그래도 민주당”

■ 민심 들여보니

서구 갑의 지역 민심은 민주당의 ‘오락가락 공천’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보이면서도 지지 후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민주당이 확고한 원칙에 의해 경선을 진행하기 보다는 광주가 ‘정치적 텃밭’이라는 인식 아래, 무사안일하게 공천에 나서 결국 ‘탈’이 났지만 조금 더 두고 본 뒤, 최종 지지 후보 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인 김모(54·치평동)씨는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지난 서구청 보를 무작정 찍을 수는 없어 조금 더 지켜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모(50·상무1동)씨는 “민주당

Table with 6 columns: 이름, 이호, 주요 경력, 주요 공약. Candidates include 성용재, 박해자, 정호, 송갑석, 조영택, 정용환.

* 새=새누리당, 민=민주당, 통=통합진보당, 무=무소속

당에서 서구 갑에서 제대로 지지를 얻으려면 당 지도부의 인사들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지난 서구청장 선거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들에 대한 연민도 물어냈다.

최모(38·회사원·농성2동)씨는 “재대로 경선을 붙여줘야 말이 없을 것 아니냐”며 “경선에서 배제된 송갑석 후보의 경우를 보니 억울할 만도 하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들은 당을 떠나 개혁적이고 취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찍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

학원생 이모(31·농성1동)씨는 “당에서 중요하기보다는 후보들의 개혁성과 정책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각종 토론회와 공약들을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힘을 보

태야 한다는 반응도 상당했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57·양동)씨는 “그래도 민주당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경선에서 잡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공천할 만한 인물을 내세웠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치평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37)씨는 “여성 후보가 여성의 마음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며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간다”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박모(53·광천동)씨는 “아직까지 서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총선 때만 나타나서 잘하는 후보들에게 질렸다.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뜨거운 주말 광주 유세전



“이정현에 한표를”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지난 30일 광주 서구 화정동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정현 서구를 후보 등과 함께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병운과 어깨동무 박지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서대석 전 후보가 지난 31일 광주 서구 풍곡사거리에서 아원연대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인 뒤 환하게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락가락 공천’ 민심의 평가는?

■ 공약과 쟁점

광주 서구 갑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광주공항 및 상무소각장 이전, 양동시장 활성화 대책, 양동 및 광천동의 재개발 사업, 농성동, 유덕동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꼽히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방안에 대해 이견보다는 대체적

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커다란 쟁점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대 쟁점은 민주당의 ‘오락가락 공천’에 대한 지역 민심의 평가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까지 지역 민심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박해자 후보가 논란 끝에 민주당

당 공천을 받았지만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무소속의 조영택, 송갑석, 정용화 후보 등과 혼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관세가 혼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거 막판에 가서야 지역 민심의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빙 혼전... 투표함 까봐야 안다”

■ 판세 및 변수

광주 8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혼전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의 무원칙한 공천 과정이 꼽힌다. 현역 국회의원을 컷-오프에서 탈락시킨 뒤, 무려 2주 동안 경선과 전략공천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지역 민심만 악화시키면서 혼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4~25일 실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3.1%), 논란 끝에 민주당 공천을 따낸 박

해자 후보가 23.3%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선두를 달렸고 그 뒤를 무소속 조영택 후보가 20.7%로 오차범위 내로 바짝 따라붙었다.

무소속의 송갑석 후보와 정용화 후보도 각각 16.5%, 15.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역전을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의 성용재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정호 후보는 8.4%, 7.7%의 지지율을 보이며 분전하고 있지만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박해자 후보는 현재의 우세 상황에서 선거 막판 민주당을 비판이 살아난다면 무난한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 논란 등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4~5% 정도의 민주당 지지 표심이 선거 당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조영택 후보 측은 컷-오프 탈락은 민주당의 기획·밀실 공천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민이 결국 경륜과 역량이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송갑석 후보도 민주당이 특정 후보 공천을 위해 당시 ‘언론사 여론조사 1위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했다며 지역 민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 후보는 “개혁적인 청년 후보가 ‘불공정 공천에 희생됐다’는 애잔한 민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용화 후보는 새누리당의 후보 공천으로 어려움을 있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성용재 후보와 통합진보당 정호 후보도 전반적인 관세는 밀리고 있지만 선전을 다짐하며 묵묵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선거 막판 변수로는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가 꼽히고 있지만 쟁점과 상황이 각기 다른데다 모두 역전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결국, 서구 갑의 최대 변수는 지난 서구청장 선거에서 두 차례나 민주당 후보를 낙마시킨 지역 민심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은 선거 막판까지 후보들을 냉정하게 비교 평가할 전망이어서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featuring a 'Special 내로' (Special In) campaign. It highlights the university's academic achievements, such as being ranked 12th in the world and 1st in Asia for 2011 QS, and 1st in Korea for SCI journal articles. It also lists various academic programs and admission information.

A cartoon illustration titled '빛의 만평' (Light's Cartoons) by Kim Jong-du. It depicts a scene with people and a building, with speech bubbles and text bubbles containing political commentary and social observations.